

익산시 특별지원신청 쇄도

시장 선거캠프 신천지 연관설 새국면

캠프 관계자 정정보도 요청에 익산 이단대책위 "일부 수용"

공공요금·신용카드 수수료 신청 6일만에 1만 여 건 문자 등 간편한 신청 방법 도입, 약132억원 신속집행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4월 1일부터 특별 지원책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간편한 신청 방법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 등 특별 지원책을 신속히 접수하고 방문 신청에 따른 감염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20개 읍면동별로 전용 메일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고, 휴대폰 문자 접수를 위해 공개계 3개를 개통하는 등 원활한 접수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별 지원책' 3종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공공요금과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은 접수 시작 6일만에 각 5,343건과 4,507건에 달한다.(4월 6일 기준)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데 시는 관련 명단을 확보한 후 대상자들에 우편 발송하여 신청 토크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위해 코로나 19로 조업이 중단된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 중 무급 휴직

을 실시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은 7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등의 지원 신청은 64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 60여명을 우선 배치하고 접수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신청대상을 고려해 기존 방법 또한 병행 실시 중이다.



익산시 '소상공인 특별 지원책' 3종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공공요금과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은 접수 시작 6일만에 각 5,343건과 4,507건에 달한다.

시는 다음주부터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며 총 132억여원을 신속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 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는 코로나19관련 지원정책을 총 망라하여 더욱 간편하게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적극 준비 중이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비상 태세로 접수 중이며 예산이 소진되기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속히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천석 목사)는 "지난 4월 2일자 기자회견 중 '시장의 선거캠프 신천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시장선거 캠프 관계자는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장선거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은 어느 종교에 있는 줄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김모 씨를 거론하면서 신천지가 관련했다는 보도가 잘못됐기에 정정보도 하라는 강력한 반발 주장에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천석 목사)는 정정보도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시장선거 캠프 관계자는 "최근 과

거 도지사의 신천지 예배참석 물의, 시장의 선거캠프 신천지 관련, 모 후보의 신천지 수뇌부 관련 의혹 등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 중 "시장선거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천석 목사는 "기자회견 내용 중 시장의 선거캠프 신천지 고위층 관련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혹여나 신천지가 정치권에 침투해 정치권을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을 뿐 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기자

익산시,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유치

공모선정... 국비 125억원 확보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동물용 의약품 허가 및 해외 수출 시 필요한 시험 등을 지원하는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125억원을 확보했다.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이하 센터)는 농식품부의 '수출주도형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에 따라 구축되는 국제적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전문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충족하는 시설로서 동물용 의약품 품목 허가 시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성적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 제품 개발과 품질개선에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시험기관이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동물 임상시험을 위한 GLP 수준의 시험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며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GLP 인증 시험실시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8년 12월 전북도 자체 기본계획 수립 이후 도와 익산시는 농림부에 사업 필요성 설득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며 올해 농식품부 신규예산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그해에 올해 3월 전국광역자치단체 단수 후보 공모 방식에 따라 익산시를 기반으로 한 전라북도과 안동시를 기반으로 한 경상북도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익산시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올해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센터는 월성동의 인공공통전염병 연구소 부지 내에 위치하며, 국비 125억원 외에 지방비 125억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공동 분담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도내 最多'

군산시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실속 있는 혜택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군산경찰서의 협업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해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인 군산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산시에서 확인 후 10만원 상당의 군

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9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4,000만원(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지원 가능한 고령운전자 400명 중 현재 347명(86.7%)의 지원자가 신청해 추가적으로 2,100만원(210명분)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고납절 교통행정과장은 "군산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원포인트 제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먼저 신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산시민에게 선불카드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201억 원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3718억 3천만원 보다 201억 원(1.5%)이 증액된 1조 3919억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금액은 재난기본관리기금 70억원과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증액된 20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 271억 원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형 청년수당 2차 모집

군산시가 군산형 청년수당 2차 모집을 조기 추진하며 구직활동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을 지원한다.

군산시는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올해 1월 1차 모집에 이어 하반기 예정이었던 2차 모집을 조기 추진한다.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은 고용시장 약화와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100명의 미취업청년 지원을 목표로 1차 46명을 선발해 지원 중이며 하반기에 추진예정인 2차 54명을 코로나19 극복 관련해 조기에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상 경과한 만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 숙소 운영

코로나19 역유입 원천 차단... 베스트웨스턴호텔 추가 확보

군산시는 7일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역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총지배인 나정대),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대표이사 윤인식)와 공동으로 해외 입국자 전용 안심 숙소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무증상 해외입국자로부터의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청소년수련원(15실)을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해 왔다.

최근 해외입국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오식도동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호텔(34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49실 규모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을 위해 호텔 측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안심숙소 운영을 위해 다른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군산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군산도시가스(주)는 호텔 측의 결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안심숙소 운영기간 동안 안심숙소 도시가스 사용료를 20% 감면이라는 통 큰 지원으로 내려 해외입국자 검사결과 대기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군산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군산시는 도내 시군 중 자체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는 전주에 이어 최대 규모로(전주 50실, 익산 30실), 향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해외에서 귀국하는 시민들의 검사결과 대기시설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숙소는 1인 1실 형태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된 시설로 지정하고, 체온계·마스크·소독약 등이 포함된 자기격리용 물품과 기본 생활 물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계획이

다. 또한, 입소자 및 근무자 등의 안전을 위해 2m 이상 거리 두기와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역 등도 더욱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무증상 해외입국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추가 시설을 확대하여 해외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숙소에서 머물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적극 참여해준 두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입국자들은 일괄 수용용으로 군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1박 2일 간 지정된 안심숙소에 머무르게 된다. 음성 판정 시에는 시에서 마련한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자택(또는 본인이 정한 별도의 격리장소)으로 이동하여 14일간 자기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자기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